

2023 Jul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6월 동향

6월 FOMC에서 점도표 2회 상향 등이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이어진 파월 의장의 향후 2회 추가 긴축 가능성 제시 등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급등세 시현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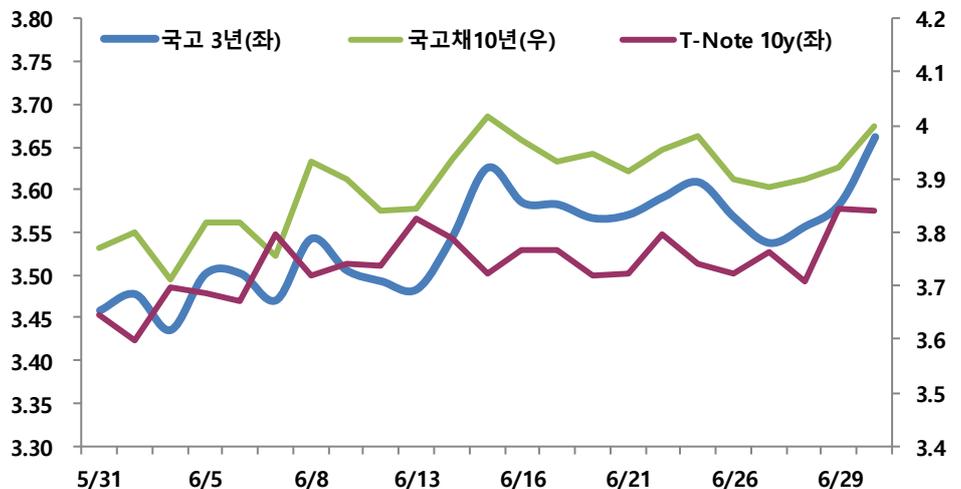
주요국 중앙은행 매파적 금리인상으로 금리 상승 흐름 나타났으나, 미 실업보험 증가에 따른 연준 금리 동결 분위기 강화로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미 5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4.0%로 크게 둔화되었지만, FOMC에서 점도표를 2회 상향한 영향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된 분위기

파월의장의 의회 연설의 매파적 2회 긴축 가능성 제시 속 여전히 견조한 미 경제 지표 국면 등으로 급등세 시현에 영향

- 월초, 호주, 캐나다 중앙은행 매파적 금리인상이 연준 물가 대응 경계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미 실업지표 부진 등이 반영되며 하락 전환
 - 월 초, 미 고용지표의 견조함 속에 호주 및 캐나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긴축 경계감을 강화할 것이라 우려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 시현
 - 하지만 이어진 주간 미 실업보험 청구건수 급증에 6월 금리 동결 분위기 강화로 하락 전환하는 양상
- 중반, 국내 무역지표 부진 등 경기 회복력 약화 등이 반영되며 하락 지속 후, 미 5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FOMC 점도표 상향에 따른 매파 성향 등으로 상승 전환. 하지만 이어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한은의 다소 비둘기적 스탠스 반영 속 재차 하락 전환
 - 중반, 국내 무역 지표 부진 등 경제 체질 약화 등의 반영 속에 하락 흐름 이어간 후, 미국 5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FOMC에서의 점도표 2회 상향의 매파적 기조에 상승 흐름 전환한 양상
 - 이후, ECB 매파적 통화정책 결과의 불확실성 해소 속에 한은의 국내 물가 상황이 여타 국가들 흐름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언급이 비둘기적으로 인식되며 하락 흐름 유지한 국면
- 후반,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의 추가 2회 긴축 가능성 언급과 견조한 흐름의 미 경기 반영 등으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 반영으로 국고채 금리 급등 양상 시현하며 마감
 - 후반, 파월의장 의회 연설에서의 물가 대응에 대한 추가 2회 긴축 가능성을 제시한 매파적 의견 피력에 7월 FOMC 금리인상 확률 상승 반영 등으로 국내외 국채 금리가 크게 급등하는 양상으로 전환
 - 여기에 5월 내구재 수주, 전미 주택가격지수 상승 등 여전히 견조한 경기 국면을 보인 점도 추가 긴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등에 영향을 미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6월 평균
 국고채(3년): 3.55%
 T-Note(10년): 3.74%

자료: 하나은행. 단위 %

7월 전망

7월 연준 추가 긴축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주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른 동결 가능성 상존과 한은 국내 물가 상황 고려, 연준과 차별화된 동결 기대 등이 상단 제한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국고채(3y, %)	3.46	3.38	3.50 ^(F)	3.30 ^(F)

전월 연준 금리 동결 이후, 연준 의장이 추가 긴축 여지를 남겨 놓은 측면에 대해 시장이 최소 1회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점이 국내외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하지만 연준도 현 금리 수준이 경제에 제약적 긴축 수준으로 인식하는 점과 정책 결정이 지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부 동결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판단됨

7월 국고채(3Y) 금리는 3.55%~3.70% 예상

- 최근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 속에 연준 긴축 의지가 추가로 현실화될 가능성 높은 측면이 국내외 국채 금리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6월 미 연준 의장 연설과 유럽 포럼에서의 추가 긴축 언급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최소 1회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등이 국내외 국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월 초반 작용할 전망
 - 이러한 연준의 긴축 의지와 시장의 1회 반영 가능성 기대 등은 둔화 국면을 보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1분기 GDP 성장 결과 및 소비심리지표 등 견조한 경기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하지만 경기 측면 고려와 물가의 목표 수준에 같같이 남았음을 제시한 연준 매파 기조에도 현 수준이 경제에 제약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CPI가 기존 추세 유지하며 크게 하락할 가능성 상존에 연준은 7월 금리동결 기조 이어갈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
 - 상기의 미 경기 상황과 물가의 목표 2%에 여전히 가야할 길이 있음을 인식하며 연준은 매파기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 금리가 경제에 제약적 긴축 수준으로 연준 또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6월 CPI가 기존 추세를 유지하며 큰 폭 둔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표가 반드시 모두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 속에 지표에 근거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금리인상 vs 동결 가능성을 55:45의 가능성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내적으로 국내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전환된 가운데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에 따른 경제 체력의 부분적 회복 가능성과 국내 물가의 3% 초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의 차별성을 이어가며 기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최근 국내 대외거래 수지에서 6월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전환. 여기에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에 의한 경제 모멘텀 의 부분적 회복 가능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기에 국내 물가 지표도 3%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은은 연준 매파 성향과 다소 차별화를 이어가며 기존 동결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은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파월 의장 연설에서의 매파적 기조 · 현재까지 견조한 미국 고용 및 소비지표 결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경제에 제약적 긴축 수준으로 연준도 인식하고 있는 현 금리 수준 · 대내적 물가의 3% 초반 근접 가능성 속에 연준과 차별화된 기존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6월 동향

미 6월 CPI 4.0%로 하락하며 약달러 영향 속 1,27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연준 금리동결 결정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지속 의지와 경제지표 호조 등이 달러 강세 전환에 영향 미치며 1,310원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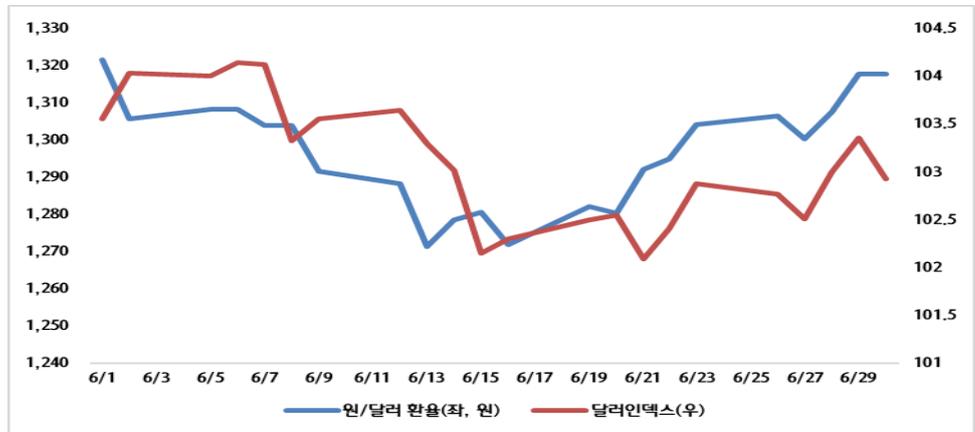
미 부채한도 리스크 해소된 가운데 엇갈린 미 5월 고용지표에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 유입되며 환율은 1,290원대로 하락

미 물가 둔화와 연준 금리동결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큰 폭 하락했으나 연내 2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하락폭 되돌리며 등락

글로벌 중앙은행 긴축 지속 분위기와 미 경제지표 호조에 환율 상승 흐름 지속되었으나 수급상 수출업체 달러 매도 우위에 상당 제한된 양상

- 월초, 미 부채한도 이슈 해소된 측면이 위험선호 부각시키며 환율은 하락 출발 후, 혼재된 미 5월 고용지표 결과에도 연준의 금리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하락하는 모습 시현
 - 월초, 미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의회 통과로 디플트 우려 해소된 가운데 미 5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에도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위험선호 심리 지속 등에 1,290원대로 하락
 - RBA, BOC의 금리인상 결정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도 미 무역적자 확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 미 경제지표 부진에 6월 FOMC 금리동결 기대감 확대되며 하락 지속
- 월 중반, 미 물가둔화 조짐과 6월 FOMC에서의 시장 예상에 부합한 금리동결 결정으로 큰 폭 하락했으나 연준 의장의 추가 금리인상 예고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긴축 우려 속 상승 전환
 - 중반, 미 5월 CPI 4.0%로 다소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연준의 6월 금리동결 전망으로 장중 1,260원대까지 하락 시현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두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으로 상승 전환
 - 이어 미 5월 PPI 둔화 등 물가상승 둔화 조짐에 시장 내 긴축 지속 우려감 다소 완화되며 환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이어짐에 따라 재차 상승하며 1280원 전후에서 등락
- 후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인상 결정 후 긴축 지속 우려감 부각되며 상승 지속되었으나 수급상 반기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 우위로 상승폭 제한되며 1310원대 진입하며 마감
 -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의지 드러내는 가운데 BOE의 50bp 금리인상 결정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 긴축 우려 속 위험회피 분위기 이어지며 1,300원대로 상승
 - 미 1분기 GDP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에도 반기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상당 제한하는 가운데 1,317.7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6월 달러/원 평균환율 : 1,297.1
6월말 달러/원 환율 : 1,317.7

7 월 전망

연준 긴축 가능성이 초반 원화 약세 요인이나, 현 미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측면에서 CPI등 추가 지표 긍정적일 경우 동결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원화에 긍정적 수급, 대외요인 감안시 1,300원 초반 등락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달러/원 환율(원)	1,280	1,310	1,290 ^(F)	1,260 ^(F)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가 7월 초반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일 요인으로 보이지만, 월중 제시될 미 경기지표에 따라 동결 가능성 배제 못하는 상황 속에 환율 변동성은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7월 초반 달러 강세 흐름이 ECB등 물가 대응 긴축을 유지하는 경제권역 대비 통화강세를 제한할 가운데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 모멘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원화 약세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7월 달러/원 환율
1,290원 ~1,330원 예상

-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 표명이 초반 원화 약세 압력 요인으로 판단. 다만 실제 FOMC의 금리 인상 여부는 6월 CPI 추세, 경제지표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연준 의장 의회 연설 이후 추가 긴축 의지 지속 등이 초반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하지만, 실제 인상은 6월 CPI와 2분기 성장 지표 등 자료에 기초할 공산이 클 것임에 따라 경제, 물가 지표 공개 시점에 환율 변동성 높아질 전망. 다만 현 금리가 제약적 긴축 수준이라는 측면에 연준도 동의하는 점은 지표가 부정적일 시 동결기조를 보일 수 있는 측면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ECB는 긴축 지속에도 그 강도가 연준에 의한 높은 환율 변동성을 제어하지 못할 전망. 여기에 경기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 영향은 달러 강세 견인을 통해 원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 국가들 중 ECB는 물가 대응에 여전히 제약적 긴축 수준이 아님을 표명, 추가 긴축 의지를 높이고 있으나 미 긴축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국면이 달러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과 BOJ 경기회복력 우선 정책에 따른 통화 약세 움직임도 달러 강세를 일시적으로 부추킬 소지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원화 약세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16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난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 가시화 등이 수급적으로 약했던 원화 약세 방어에 영향을 미칠 전망. 여기에 일본과의 통화스왑도 원화 안정화 요인 판단 속에 1,320원대에서의 외환당국의 불편함으로 1,330원 상향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대외거래 수지에서 16개월만에 무역적자 추세가 전환된 가운데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가시화 기대 등에 따른 긍정적 수급 요인이 최근 연준 매파 요인에 따른 달러 변동성 심화를 제한할 전망
 - 여기에 1,330원대 상향에서 외환당국의 불편함과 함께, 최근 일본과의 100억 달러 통화스왑 요인 등도 대외적 달러 강세 반영 시 원화의 심화 약세를 제한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 의장의 7월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매파적 시사 · 위안화, 엔화 등 달러 대비한 상대적 주요국 통화 약세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물가 지표 감소 확대 가능성 속 데이터에 근거한 연준 정책 고려 시 동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1,320~1,330원대 상향 시점에서의 외환당국의 불편함에 따른 개입 가능성 증대 · 일본과의 100억 달러 통화 스왑 체결 요인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BOJ 차별화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에 의한 달러 강세 반영 등으로 추가 약세 우위가 예상. 엔/원은 연준 매파 영향의 양 통화 모두 비슷한 약세 압력 예상으로 910원 전후 흐름 전망

6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1.4
5월 엔/원 평균환율 : 917.2

7월 엔/원 예상범위 : 905~920원

- (엔화동향) BOJ 완화적 정책 유지에 따른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으로 엔화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증시 하락 등의 안전자산 수요 강화가 엔화 약세 제한하며 출발. 중반, 6월 FOMC 금리동결 결정 이후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지속, ECB의 연속 금리인상 단행 등에도 BOJ는 초완화적 정책 고수 의지를 시사하며 엔화 약세 지속. 후반, 일본 5월 근원 CPI 이전치 대비 하락한 가운데 일본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엔화 약세 이어지며 마감
- (엔/원 전망) 대외적 FOMC에서 연준의 추가 2회 긴축 가능성 제기 등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등이 엔화 약세 기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 여기에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폭을 줄었으나 22개월 연속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도 정점 이후 감소세를 보임. 이에 BOJ는 지속적 경기 활력 도모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현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이에 엔화는 145엔을 6월 말 상향한 가운데 단기 방향성도 추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파월 의장 의회연설 통한 추가 2회 긴축 가능성 시사에 의한 달러 강세 반영되며 엔화 약세 견인될 전망. 여기에 BOJ 경제 회복력 중심 현 초완화 기조 지속 차별화 정책 또한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
 - 반면, 초약세 엔화에 대한 BOJ 개입 가능성 등은 상단 제한할 가운데, 엔/원 환율은 연준 추가 긴축 가능성 요인의 상대적 완화 약세 심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905~915원 수준 등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유로/원 전망

ECB의 매파적 물가 대응 이어질 전망은 유로 강세 지지 요인. 하지만 최근 연준 추가 긴축 시사에 따른 통화적 측면 달러 강세 우위로 1.08~1.095 수준 등락 예상. 유로/원은 원화 소폭 상대적 약세 우위로 1,450원 흐름 예상

6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46
6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06.7

7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20~1,445원

- (유로화 동향) 유로존 주요국 물가지표 둔화에도 ECB 매파적 스탠스 지속되는 측면이 유로 경기 불확실성 부각하며 유로 약세 견인했으나 연준 금리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강세 전환. 중반, 6월 FOMC에서의 연준 금리동결 결정 이후 ECB는 추가 금리인상 단행하자 달러 대비 유로 큰 폭의 강세 시현. 후반,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제조업 PMI 하락 추이에도 ECB 총재의 7월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 따른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에 강세 다소 제한되며 마감
- 상대적으로 뒤쳐진 경기 회복력에도 물가 상승에 대한 ECB의 강한 대응에 따른 매파 통화정책 지속이 유로화 강세 견인할 모멘텀으로 판단. 하지만 최근 연준도 추가 긴축을 예고한 가운데 유로화에 대한 달러 강세가 제한되지 않을 측면 등이 역으로 유로 강세 제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로화는 6월 후반 환율 수준에서 다소 높은 변동성 보이며 등락할 전망
 - ECB의 물가 대응 매파적 금리인상에도 상대적 견조한 경기 수준과 추가 긴축을 예고한 연준 통화정책 강도 고려 시 유로화의 추가 강세 제한 속 1.08~1.95수준 등락 흐름 예상
 - 유로/원은 미 추가 긴축 가능성에 따른 원화 상대적 소폭 약세 반영 등으로 1,450원대 흐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월] 주요이슈 RBA 통화정책회의(7/4) NATO 정상회의(7/11-12) 한국 금융통화위원회(7/13)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7/13) 미국 FOMC(7/25-26) ECB 통화정책회의(7/27) IMF 세계경제전망(월중) 연준 반기 의회 보고(월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월중)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속보치, [F]-확정치, [A]-참정치, ()안은 이천치					1 [이슈] 리보(LIBOR)금리 산출 중단 : 미국 무위험지표금리(SOFR) 등 대체 한국 6월 수출/입(-14.0%) 무역수지(-\$2,117m)
2	3	4 RBA 통화정책회의	5 지준일	6	7 미국 고용보고서	8
	한 6월 S&P 글로벌 PMI 제조업(48.4) 미 5월 건설지출(MoM +1.2%) 6월 ISM 제조업(46.9) 중 6월 Caixin 제조업 PMI(50.9) 유 6월 PMI(44.8)	[유일] 미국 독립기념일 [RBA 통화정책회의] (1) 직전 회의 4.10%로 25bp 인상,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향후 인상 가능성 시사 하며 긴축 통화정책 필요성 강조 (2) RBA는 4월 동결 이후 5월, 6월 두차례 연속금리 인상 단행, 이번 회의 결정 주목 한 6월 CPI(MoM +0.3%, YoY +3.3%)	미 FOMC 의사록 공개 5월 제조업수주(0.4%) 중 6월 Caixin 종합(55.6) 서비스 PMI(57.1) 유 5월 PPI(MoM -3.2%, 137.9) 6월 서비스업 PMI (55.1)	미 5월 무역수지(-74.55b) S&P 글로벌 서비스, 종합 PMI ISM 비제조업지수(50.3) 유 5월 소매판매(MoM +0.0%, YoY - 2.6%)	한 5월 경상수지 (-792.6) 미 6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339k) 실업률(3.7%) 중 6월 외환보유액 일 5월 실질 임금총액(YoY -3.0%)	
9	10	11	12 美 CPI, BOC 통화정책회의	13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4	15
	미 5월 도매판매(MoM +0.2%) 중 6월 CPI(YoY +0.2%) PPI(YoY -4.6%) 일 5월 BoP 경상수지	미 5월 미국 소비자신용 일 6월 통화량 M2(YoY +2.7%)	한 6월 실업률(2.5%) 미 6월 CPI(MoM +0.1%, YoY +4.0%) CPI 근원(MoM +0.4%, YoY +5.3%) 일 6월 PPI(MoM -0.7%, YoY +5.1%) [BOC 통화정책회의] 지난회의 기준금리 4.75%로 25bp 인상, BOC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금리 동결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지난 회의 기준금리 3.5% 동결 →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동결기조 이어갈지 주목 한 6월 수입물가(YoY -12.0%) 수출물가(YoY -11.2%) 미 6월 PPI(MoM -0.3%, YoY +1.1%) 유 5월 산업생산(YoY +0.2%)	한 5월 통화공급 M2(MoM -0.3%) 미 6월 수입물가(MoM -0.6%, YoY -5.9%) 수출물가(MoM -1.9%, YoY -10.1%) 유 5월 무역수지 일 5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16	17	18	19	20	21	22
	[유일] 일본 바다의 날 미 7월 뉴욕주 제조업지수(6.6) 중 2Q GDP(YoY +4.5%, QoQ +2.2%) 6월 광공업생산(YoY +3.5%) 부동산투자 YTD(YoY -7.2%)	미 6월 소매판매(MoM +0.3%) 광공업생산(MoM -0.2%) 7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5.2) 일 5월 3차 산업 지수	미 6월 주택착공건수(MoM +21.7%) 건축허가(MoM +5.2%) 유 5월 건설생산 CPI(YoY +6.1%) CPI 근원(YoY +5.3%)	미 6월 기준주택매매, 선행지수 7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3.7) 유 7월 소비자기대지수 일 6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0.6%/ -9.9%)	한 6월 PPI(MoM -0.3%) 일 6월 국내 CPI, CPI 근원(105.1)	
23	24	25 미국 FOMC(~26일)	26	27 ECB, BOJ 통화정책회의	28	29
	미 6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7월 S&P글로벌 PMI 유 6월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P] 일 7월 지분은행 PMI[P]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00~5.25% 동결, 점도표는 하반기 2차례 인상 시사 (2) 이번 회의에서 동결 기조 이어질지 주목 한 2Q GDP 미 7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한 7월 소비자신리지수 미 6월 신규주택매매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 기준금리 4.0%로 25bp 인상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물가 부담 높다는 판단 (2) 7월 추가 인상 시사, 긴축기조 유지 전망 [BOJ 통화정책회의(-28)]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0.1%로 동결하며 완화 적 통화정책 유지, 총채는 기자회견에서 물가 전 망 변경시 정책전환 가능성 시사	한 광공업생산 YoY 미 시카고 PMI지수 PCE 근원 디플레이터 YoY (4.7%) 일 금정위 실업률 (2.6%) 도쿄 CPI (전년대비) (3.2%) 중 제조업 PMI 유 실업률	
30	31					
	미 7월 시카고 PMI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중 6월 종합,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2Q GDP(QoQ -0.1%, YoY +1.0%) 일 6월 산업생산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